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설명자료</h1>	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		배포일시	2020. 12. 5.(토) / 총 4매(본문2, 참고2)	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현정, 사무관 서혜린, 주무관 김형민 • ☎ (044) 201-3940, 4643, 4642		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대한민국, 2021년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 유치 -유라시아 29개국 장관급이 참여하는 대륙철도 협력의 장 열린다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020년 12월 4일 대한민국이 내년 6월에 개최(2021.6.15~6.18)되는 제49차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 장관회의를 유치했다고 밝혔다.
- 국제철도협력기구(OSJD)*는 동북아시아부터 동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국제표준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국제기구로서, 1956년에 창설되어 현재 시베리아 횡단철도(TSR), 중국횡단철도(TCR), 몽골횡단철도(TMGR) 등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2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.

* 러시아, 중국, 몽골, 북한 등 29개 정회원국, 도이치반(獨), SNCF(佛) 등 6개 옵저버 회사, 회원국 및 비회원국 철도운송회사 등 32개 제휴회사 참여

- 한국은 유라시아 철도망과 연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OSJD 가입을 추진해 왔으며, 2018년 6월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된 제46차 OSJD 장관회의에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29번째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바 있다.

* 우리나라는 '18.6월 제46차 장관회의(키르기스스탄)에서 가입 이후, '19.6월 제 47차 장관회의(우즈베키스탄), '20.9월 제48차 장관회의(영상회의 대체)에 참석

□ OSJD 장관회의는 매년 전 회원국 철도 관련 정부기관의 장관급이 참여하여 OSJD 활동결과를 보고받고, 향후 유라시아 철도 정책 방향과 회원국간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기구 내 최고 의결기구이다.

○ 2021년 제49차 OSJD 장관회의는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개최장소가 결정되지 못했으나, 우리나라가 이번 OSJD 전권대표회의*에서 OSJD 위원회 및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아 내년 장관회의 개최국으로 결정되었다.

* 차년도 OSJD 업무일정 등을 결정하는 실무 회의체, '20.12.1~4일간 영상 개최

□ 2021년 개최될 제49차 OSJD 장관회의에는 29개 회원국 장관급을 비롯해 도이치반, SNCF 등 주요 철도운영기관과 UN ESACP 등 OSJD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기구 등에서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,

○ 우리나라는 내년 장관회의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, 중국, 몽골 등 유라시아 철도 운행국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유라시아 철도망 연계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우리나라는 철도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오랜 시간 대륙 철도 연결을 준비해왔다”며,

○ “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내년 장관회의 개최 기회가 주어진 만큼, 내년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륙 철도 운행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 등과 방역조치 등을 협의하여 차질 없이 준비 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서혜린 사무관(☎044-201-46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OSJD 개요

명칭	▶ 국제철도협력기구 (OSJD) *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Railways
본부	▶ 폴란드 바르샤바 소재
설립	▶ 1956년 6월
회원국	▶ 정회원국 (29개국) - 아제르바이잔, 알바니아, 벨라루스, 불가리아, 헝가리, 베트남, 조지아, 이란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탄, 중국, 대한민국 , 북한, 쿠바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몰도바, 몽골, 폴란드, 러시아, 루마니아, 슬로바키아, 타지크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체코, 에스토니아, 아프카니스탄 ▶ 옵저버社 (6개 기업) - DB(獨), 그리스철도(OSE), SNCF(佛), 핀란드철도(VR), 세르비아철도(ZS), 러시아연방여객회사(FPC) ▶ 제휴회사 (43개 기업) - 회원국 및 비회원국 철도관련기업
기능	▶ 유럽-아시아 간 철도복합운송실현을 위한 국가 간 협조 ▶ 국제철도여객·화물운송협정(SMPS, SMGS) 및 국제철도여객·화물운임(MTT, ETT) 관장
주요조직	▶ 장관회의 (최고의결기관) ▶ 철도사장단회의 ▶ OSJD 위원회 (사무국 역할 수행)
재정운영	▶ 예산규모는 약 661만 스위스프랑(한화 약 82.5억원) ▶ 예산의 50%는 회원국이 1/27씩 균등부담(쿠바, 알바니아 제외), 잔여 50%는 자국철도 길이에 따라 부담 * 우리나라는 연간 1.7억원 가량 부담
신규 가입절차	▶ 가입을 희망하는 철도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신규회원 가입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, OSJD 사장단·장관 회의에서 검토 * 가입희망국의 신청접수 (매년 1/4분기내) → 철도사장단 회의 (4월) 검토 → 장관급 회의 (6월) 결정 ▶ 연례장관회의(Ministerial Conference)에서 만장일치제로 최종 가입여부 결정
추진경과	▶ ('14.3월) 코레일 OSJD 제휴회원 가입 ▶ ('15.5월) OSJD 사장단회의 및 물류분과회의 개최(서울, 코레일 주관) ▶ ('15~'17년) 매년 정회원 가입 신청하였으나, 기존 회원국 반대로 무산 ▶ ('18.6월) 만장일치(북한찬성)로 OSJD 정회원 가입 ▶ ('19.4월) 제34차 OSJD 사장단회의 개최 (서울 롯데, 코레일 주관) ▶ ('19.6월) 제51차 OSJD 장관회의('23년) 유치(우리나라 개최)

□ 장관회의 개요

- (기능) 회원국 철도당국 장관급이 참석하는 OSJD 최고 의결기구
- (날짜) '21.6.15(화) ~ 6.18(금)
- (참석규모) OSJD 위원회, 29개 회원국 대표, 제후회원*, 옵저버**, 관련 국제기구*** 등 200여명(잠정)

* 철도관련 43개 기업 ** 유럽 철도운영사(SNCF, DB 등) *** UN-ESCAP, UIC 등

□ 주요의제(안)

- '20년도 OSJD 활동결과 보고
- '20년도 감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
- '20년도 교통정책·개발전략분과위원회 업무결과 보고
- '20년도 교통법분과위원회 업무결과 보고
- 「국제직통철도교통에 관한 협약문」 채택 추진현황
- UN ECE의 「유라시아 및 범유럽 교통회랑 내 단일철도법」 현황
- 유라시아 역내 철도운송 전문교육 및 인력양성 현황 및 계획
- '22년 이후 OSJD 주요 업무 추진방향
- 국가별 분담금 납부 및 OSJD 위원회 예산
- '22년 제50차 장관회의 예비의제, 개최 장소 및 기간 등